

프랑스의 예술 및 아동도서 출판동향

세대교체로 활기치는 예술도서...아동도서는 대그룹이 거의 장악

안느 드 마르주리

마르노-씨마텔社 대표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권병일)는 한·불 양국간 출판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 아래 '90 한·불 출판협력에 관한 세미나'를 지난 5월 17일 출현 강당에서 개최했다. 한·불 문화교류의 실질적 중개역을 담당할 양국 출판계의 상호이해 증진의 계기가 됐던 이날 세미나에서의 발표요지를 다음에 정리한다.

프랑스의 예술도서 출판은 젊고 열정적이며 창의적인 출판인들의 새로운 참여로 몇해전부터 부쩍 활기를 띠고 있는데, 이는 구세대 출판인들이 신세대의 젊은 출판인들로 교체되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플라마리옹출판사의 예술부를 다년간 이끌어오다가 3년전에 자신의 출판사를 차린 아담 비로의 경우, 플라마리옹社의 대부분였던 앙리 플라마리옹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서도 이제 자신의 출판사를 예술도서 출판의 명문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또, 르가르드출판사를 세워 성공리에 이끌고 있는 요제알바레는 거의 혼자 힘으로 주제가 독창적이고 미적으로 섬세한 정성을 들인 책들을 발간하고 있다. 한편, 일반문학 분야에서 전통있는 출판사인 갈리마르는 최근 파리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그래픽디자이너의 한사람인 작크 마이오를 채용했는가 하면, 동시에 장 루이 샹피옹이란 젊은 부서장에게 문학예술도서 출판을 책임지게 했다.

이같은 예들은 일일이 다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분야의 다양한 출판사들을 규모나 내용별로 살펴보는 일이다.

우선 규모로 보면 르가르드社처럼 2명이 하는 출판사들이 있는가 하면, 플라마리옹社처럼 20명이 운영하는 출판사도 많다. 출판실적은 한해에 3~4권을 발행하는 곳으로부터 30~50권을 만들어내는 아세트그룹의 센드출판사 같은 곳도 있다. 매출액 역시 2백만프랑에서 5천만프랑, 혹은 그 이상까지 천차만별이다.

통계수치로 보자면 예술도서 출판이 어쨌든 증가추세인 것만은 사실이나,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총출판량의 7%만이 예술도서에 해당된다. 문학이 22.8%로 가장 많고, 사전류 18.6%, 교과서 및 학습서 14.8%, 일반실용도서 9.7%, 청소년도서 9% 등으로 예술도서 7%는

너무 적은 수치이다. 종당 평균발행부수는 6,520부이며, 연간 840여종의 신간이 예술도서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러스트의 저작료 인상이 큰 문제

프랑스에서의 예술도서 출판은 몇가지 특수한 전문성을 갖는데,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이 투자부담이 막중하다는 점이다. 예술도서는 미국이나 유럽의 다른 나라에 있는 북클럽들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시장의 편중현상이 크고 반품율도 높다.

둘째, 국내시장이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어 판매부수 증가와 원가절감을 위한 외국과의 공동출판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프랑스나 예술도서만의 고유한 문제는 아니지만, 오늘날 세계공용어가 된 영어가 프랑스어를 방언의 수준 정도로 밀어내고 있기에 절박하다.

셋째, 일러스트레이션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저작권협회에서 그림에 대한 저작료를 정기적으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책에 있어서의 그림의 위치를 위협스럽게 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의 어떤 출판사는 저작권료의 조건이 맞지 않아 그림을 포기한 경우도 있다.

넷째, 판매량이 연말에 집중돼 있다. 프랑스에서 책은 모두에게 어울리는 수준높은 선물이지만, 크리스마스 기간이 사람들이 책에 대해 생각하는 유일한 시기가 되고 있다.

다섯째, 프랑스에는 예술도서 분야의 베스트셀러가 없다. 조건이 아주 좋지 않으면 재판비용이 비싸기 때문에(고정 비용이 초판에 비해 줄어들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재인쇄해야만 한다. 게다가 현재 프랑스에서는 문화부장관의 이름을 딴 '랑법률'에 의해 도서 정가가 2년동안 고정돼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랑법률은 도서의 양과 질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장치로 유용한데, 예컨대 매년 책값을 올릴 수 있도록 할 경우 출판인에게 단기적인 이익은 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판매부수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술도서는 위에서 살펴본 이유들 때문에 넓은 층으로부터 관심을 끌지는 못한다. 예술도서가 앞으로도 존속하기 위해서는 도서제작에 있어서의 섬세한 배려나 예술적 감각의 투입이 가능한, 대그룹의 그것과는 구별되는 독창적인 작은 출판사들이 필요할 것이다.

예술도서와는 달리 아동도서는 흔히 대그룹

프랑스에서의 예술도서 출판은

몇가지 특수한 전문성 때문에 그다지

광범하게 이루어지는 편은 못된다.

전체출판량의 7%에 해당될 뿐이다.

그러나, 도서제작에 있어서의

섬세한 배려나 예술적 감각의 투입이

가능한, 독창적인 '작은' 출판사들의

노력으로 점차 활기를 띠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출판사들이 주도하고 있다. 1988년 프랑스에서는 총3백만부의 아동도서가 발행됐고, 종당 평균부수는 11,000부, 매출액은 백만프랑을 조금 웃돌았다.

아동 및 청소년도서를 가장 활발하게 출판하는 곳의 하나는 물론 갈리마르社이다. 갈리마르의 '데꾸베르트(발견)' 시리즈는 아주 주목할 만하다. 그 책들은 컴퓨터에 의해 경제적이고 지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졌으며, 내용이 나 텍스트의 질 뿐 아니라 풍부한 일러스트레이션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3개 대형사가 아동도서시장 장악

아동 및 청소년도서 출판은 대개 큰 시리즈물을 목표로 삼는다. 여러해가 지나도 재판이 됨에 따라 오랫동안 꾸준히 판매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루즈출판사의 '에밀'이라는 그림동화시리즈는 이미 판매부수 5백만부를 넘어섰고, 8년여에 걸쳐 출판된 카스트먼출판사의 '마르핀느' 시리즈의 경우 「마르핀느가 수영을 배운다」는 한권만도 벌써 백만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다큐멘터리와 백과사전류도 또한 많은 판매량을 보이는데 나뮈출판사의 「메가 유니어」라는 책은 삼십만부 이상을 기록했다.

한편, 나뮈출판사에서는 창작물 출간이 3년사이 35%에서 80%를 넘어서고 있는데, 창작물 출판에 대한 열정은 야심적으로 보이는 중간크기의 출판사들에서 특히 강하게 느껴진다.

갈리마르와 나뮈와 함께, 몇해전부터 젊은 편집자들이 출판도서의 목록선정 일을 담당하고 있는 아세트그룹도 주목을 요한다. '착한



안느 드 마르주리 여사.

사람들과 부인들'시리즈가 2백50만부 이상이 나갔는가 하면, '루즈총서'와 '베르총서'도 각각 2백만부 이상씩 나간다. 이들 세 출판사, 곧 갈리마르와 나뮈와 아세트가 프랑스의 아동 및 청소년도서 출판시장의 거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신문 및 정기간행물류와 출판을 연결시키면서 국제화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이른바 '프레스 그룹' 들도 아동도서 출판시장의 큰 몫을 차지한다. 바이야르프레스와 그 계열사인 샹뛰리옹출판사가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곳은 우수한 텍스트와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집합소이자 상당한 분량의 에세이은행이기도 하다. 게다가, 영국, 이탈리아, 홍콩 등에 지사를 두고 있을 정도로 국제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해외의 파트너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로부터 널리 인정받고 한번의 출판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기대를 실현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동도서 또한 앞의 예술도서처럼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중의 하나가 수요의 계절성으로, 프랑스독자의 머리속에서 어린이도서, 특히 그림동화책은 으레 연말선물로 생각되고 있다. 또다른 어려움은 배포의 문제로, 프랑스에는 단지 250여개서점만이 아동 및 청소년도서 진열대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아동도서는 종종 성인용소설보다 네배나 비싸기 때문에 판매가 훨씬 어렵고 마진 또한 적은 어려움이 있다.